

The Predictors of Coronary Artery Disease in Premenopause Korean Women

전남대학교병원 심장센터, 광주원광대학병원

정선영 · 정명호 · 김계훈 · 정민아 · 박현아 · 이숙자 · 최영자 · 윤남식
홍서나 · 이상록 · 박형욱 · 조정관 · 안영근 · 박종춘 · 강정채 · 박옥규

Objective : Women before menopause are thought to be relatively safe from cardiovascular disease due to the protective effects of estrogen. There is shortage of data concerning on the risk factors for coronary artery disease in premenopausal women. **Methods :** We recruited 162 premenopausal women who underwent diagnostic coronary angiograms between Jan 2001 and Jun 2006, and classified into two groups with (n=33) or without coronary artery disease (CAD) (n=129) (documented by coronary angiogram having more than 50% diameter stenosis). And we investigated the factors associated with the coronary artery disease in premenopausal women. **Results :** Initial diagnosis was stable angina in patients (16.0%), unstable angina in patients (60.6%), and acute myocardial infarction in patients (23.4%). The patients with CAD was older than the patients without CAD (47.18 ± 3.5 vs. 44.02 ± 5.2 years). The prevalence of current smoker and diabetes mellitus was higher in the patients with CAD compared with the patients without CAD (15.2 % vs. 4.7 %, $p=0.049$; and 24.2% vs. 7.0%, $p=0.008$). Body mass index, and the prevalence of hypertension and dyslipidemia were similar between the groups. Erythrocyte sedimentation rate (ESR), c-reactive protein (CRP), fibrinogen, and homocysteine were similar between the groups. Left ventricular ejection fraction was not different between the two groups. **Conclusion :** Predictive factors for coronary artery disease in premenopausal Korean women are old age, current smoking and diabetes mellitus.

한국인 여성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의 임상적 특징 및 예방법

전남대학교병원 심장센터, 광주원광대학병원

최명자 · 정명호 · 조현영 · 이선옥 · 김은정 · 최옥자 · 임정옥 · 박숙령 · 최영자
윤남식 · 이상록 · 김계훈 · 박형욱 · 김주한 · 안영근 · 박종춘 · 강정채 · 박옥규

연구배경 : 최근에 순환기 질환은 사회 경제적인 발전과 함께 급속한 서구화를 초래하여 심근경색증과 같은 관상동맥 질환이 급증하고 있다. 한국인에서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 중 여자 환자의 발생도 증가하고 있어서 여성 환자의 위험 인자를 파악하고 한국 실정에 맞는 치료방법을 마련코자하여 여성 급성 심근경색증의 특징에 관하여 알아보려고 하였다. **대상 및 방법 :** 2005년11월부터 2006년 7월까지 전남대학병원에 입원한 374명의 환자 중 STEMI 환자[262명(남:여=194:68), 60.2 ± 11.9 세: 70.7 ± 8.5 세], NSTEMI 환자[112명(남:여=72:40), 62.3 ± 11.3 세 : 66.6 ± 10.2 세]으로 분류하여 임상적, 진단의학적검사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결과 :** STEMI 환자에서 남자에 비하여 여자의 연령이 많았으며(70.7 ± 8.5 세 : 60.2 ± 11.9 세, $p<0.001$), 흡연율은 남자 85.1 %, 여자 10.3 %로서 남자에서 유의하게 높았다($p<0.001$). 키는 남자 166.8 ± 6.2 cm, 여자 151.0 ± 6.6 cm로서 남자가 높았으며($p<0.001$), 경색 전 가슴통증은 남자에서 26.3%, 여자에서 39.7%에서 발생하였다 ($p=0.03$). 생존율은 남자 93.2 %, 여자 98.5 %로서 여자 환자에서 높았다($p=0.032$). NSTEMI 환자에서 남자에 비하여 여자의 연령이 많았으며(66.6 ± 10.2 세 vs. 62.32 ± 11.3 세, $p=0.04$), 흡연율은 남자에서 87.5% 여자에서 5.0 %($p<0.001$), 남자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키는 남자, 166.7 ± 5.8 cm, 여자 153.8 ± 6.2 cm로서 남자가 컸다($p<0.001$). **결론 :** 여자 환자의 연령이 많고 체격 조건이 좋지 않았으나 생존율이 높았다. 경색 전 가슴 통증이 여자 환자에서 많았으므로 심근경색증 발생 전 여성 환자의 흉통 발생에 대한 조기 진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었다.